꿈쩍 않는 시장 … 약효는 무슨?

지방 미분양대책 발표 한달째 … 투자심리 '꽁꽁'

광주 신고건수 고작 1곳…실효성 의문

업계 "현장 조사 등 실질적인 대책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분양 현황을 신고한 업체가 단 한 곳에 그친 데다 타 시·도 역시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아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미분양 대책이 오는 15일께 시행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10일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의결 절차를 밟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이 미분양 신고를 외면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미분양 아파트 목록을 신고한 업체는 북구의 A아파트(38세대)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건설사가 '6월11일 현재'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분양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미분양신고를 꺼리는 것은 이번 대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은 미분양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이번 대책이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한정되는 등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광주·전남 등 지방의 경우 이미 중도금 무이자나 발코니 확장 등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은 줄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타 시·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B건설 관계자는 "부산, 대전 등에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지만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 한 채도 안 팔린 현장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준비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미분양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대책은 '6월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지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통계는 4월말 기준이 가장 최근 자료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공공택지 전매제한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 대해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유럽시장 '씽씽'

'씨드' 돌풍 덕에 올 상반기 18만대 판매 … 반기 실적 중 역대 최대

기아차가 유럽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씨드를 앞세워 올해 상반기에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유럽시장에서 총 18만7천662대를 판매해 작년 상반기 16만5천943대, 하반기 17만7천147대 보다 각각 13.1%, 5.9%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기아차가 1995년 유럽현지법인(KME)을 설립한 이후 13년간 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특히 이번 상반기 실적은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유럽 자동차 시장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기아차는 전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유럽 자동차 시장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차가 이처럼 유럽시장에서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드의 역할이 컸다.

씨드는 지난해 월 평균 7천500여대가 판매됐지만 올해는 월평균 1만3천대로 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1월 씨드 5도어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9월에는 씨드 스포티 왜건 모델을, 올해 1월에는 3도어 모델인 프로씨드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파생모델을 선보여 유럽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아차는 연말에는 불필요한 연료소모와 배출가스를 저감시킨 씨드 친환경 모델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차는 이와함께 하반기 로체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준중형 신차 포르테와 소형 CUV 쏘울을 유럽시장에 출시해 판매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반값 아파트 사라지고 지분형 주택 등장한다

올해안에 시범사업 … 전매제한 적용

그동안 도입이 불투명했던 '지분형 주택'이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더 이상 구경하기 어려워진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분양 형태인 지분형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

부처간 협의는 이달 내에는 끝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각각 갖는 구상이 발표됐었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집값의 '4분의 1'만 가지고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분형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주택의 규모를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전용 85㎡이하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민간주택은 7년, 공공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아시아나 라운지 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새롭게 문을 연 아시아나의 라운지에서 이용객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측은 미술관과 도서관의 이미지를 차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5월 소매판매 10% ↑

대형 할인점등 고물가에도 매출 2천억 달해

물가 급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의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의 판매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천2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1천810억원)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기름값 등 전반적인 물가 급등으로 인한 판매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주는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천345억원으로, 지난해 5월(1천222억원)보다 10.1% 늘었다. 전남도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지난해 5월(588억원)에 비해 11.4% 늘어난 656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소매판매 동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5월 전국의 소매판매금액(경상금액)은 21조5천816억원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0.2% 늘었다.

하지만 차량용 연료를 제외한 소매판매 증가율은 6.6%에 그쳤다. 유가 급등이 소매판매 급증의 주된 요인이 된 셈이다.

상품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차량용 연료 판매액이 1년 전보다 27.0%나 늘었으며, 의약품·의료용품도 12.6% 급증했다.

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승용차와 의류 등에 대한 소비증가율은 크게 둔화됐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액은 1년 전보다 7.4% 늘었지만 지난달 증가율(12.5%)에는 크게 못미쳤다. 또 의류·신발과 오락·취미용품도 각각 1.1%, 2.6% 하락하는 등 준내구재 판매액 증가율도 1.5%에 그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지역 316개 하나로마트 상반기 매출 1,100억원 달해

전남지역 각 회원농협이 운영하는 316개 하나로마트가 시·군지역 핵심 유통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6월말 현재 1천109억원의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950억원보다 16.7%(159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나로마트는 지난해에 비해 646억원 증가한 2천795억원을 판매, 농축산물 전체 판매액의 50%까지 점유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전남본부는 하나로마트가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물 매장'을 확장하고, 농산물 순회수집, 명절맞이 특판행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이동판매 등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

KT&G 새 담배 '보헴 시가 No.5' 출시

국내 최초 시가엽 함유담배 '보헴시가'의 세 번째 브랜드, '보헴시가 No.5'〈사진〉가 9일 발매된다.

KT&G전남본부는 지난해 8월, 국내 처음으로 시가엽 함유담배의 장르를 열었던 '보헴시가 No.6, No.1'에 이어 풍부한 시가엽 본연의 맛과 부드러움을 강조한 타르 5.0mg, 니코틴 0.50mg의 스무드 블렌딩(Smooth Blending)-'보헴시가 No.5'를 전국에 출시한다.

일반 담배의 원료잎에 쿠바 등 중남미산 고품격 시가엽 30%를 토스트(toast)해 배합하고, 신기술의 탄소필터를 적용하여 자극성분을 줄여 시가 고유의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판매가는 2천500원. /이종태기자 jtlee@

光銀 창구텔러 40명 모집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지역내 고용확대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구텔러 40명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1984년 1월1일 이후 출생,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서는 10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9-5703.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추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인터넷으로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일반 아파트 관리비의 공개도 의무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공개 대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1천158개 단지가 해당된다. /연합뉴스